

이다현군·성다은양의 민족사관고 합격 비결

해마다 수십명의 학생들이 미국 아이비리그의 대학으로 진학시키는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이돈희·이하 민사고)는 자립형사립고의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민사고의 명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공부 좀 한다'는 중학생들이 몰려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사설 학원에서는 민사고반이 운영되기 한다. 올해 광주·전남에서는 각각 3명, 4명이 합격했다.

민사고 2008학년도 입시 전형에서 최근 합격 통지를 받은 성다은(16·문흥중 3년)양, 이다현(16·전남중 3년)군을 지난 2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 공원에서 만났다. 이들

은 어떻게 공부했길래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의 '꿈인 민사고' 합격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을까. 이들에게 그 비결을 들어봤다.

'민족 및 세계적 지도자를 꿈꾸는 영재'를 길러내는 것이 민사고의 설립 이념인만큼 공부만 잘해서 합격한 것은 아니었다. 악기를 다루는가 하면 문학 고전을 항상 지니고 다녔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다. 이들과 만났을 때 11~12세기 대학이 강조했던 리버럴 아트(Liberal Art·현재의 교양 과목)를 뜻하는 문법학, 수사학, 논리학, 산술, 기하, 천문, 음악 등 3학 4과가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원서 소설 읽기·동아리 활동 큰 도움”

물리학이 좋은 이다현 군

이다현군은 중학교 1학년 때 민사고가 주최하는 캠프에 참가한 뒤로 민사고에 '똥찼다'. 학생들을 인솔·지도하는 민사고 현직 교사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사상이 아니었다. 진지하고 학생들을 배려했으며, 무엇보다 '포스'가 느껴졌다는 것이 이군의 설명이다. 또 야간자율학습 같은 제도가 없어 시간을 할

린 실력도 플러스 요인이었다.

민사고에 입학하면 이군은 과학자가 되는 꿈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 물리를 더 깊이 공부할 생각이다. 지금은 컴퓨터의 기본이라고 일컬어지는 C언어를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다.

하지만 이와 계열의 과목을 좋아하는 이군은 이번 민사고 시험을 치르면서 학문적인 편식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군은 “지구온난화에 대해 묻는 과학 문제조차 폭넓은 인문학적 지식이 없으

외교관 꿈꾸는 성다은 양

성다은양의 꿈은 외교관이다. 민사고 진학을 앞두고 두고 공부한 것은 중학교 올라오면서부터다. 민사고에서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달리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고, 학업 외의 여러 활동들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끊임없는 역사 왜곡은 성양에게 외교관으로의 꿈을 키우게 했다. 민사고에서는 고구려사와 러시아사

서 빛을 발했다. 성양은 “사회 과목에서 출제된 영국 산업혁명의 사회·역사적 의의는 2학년 때 주로 배웠던 건데, 당시 세계사의 흐름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풀기 힘든 문제였다”고 말했다. 성양에게도 약점은 있다. 바로 수학이다. 교내대회에서조차 입상한 경력이 없을 정도로 평범이어서, 고교 진학을 앞두고 하루 3시간 정도를 수학에 할애했고 있다. 수학의 풀이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막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인내심이 부족할 것을 단점으로 꼽았다.

올 민사고 4대1 경쟁 154명 선발 지역균형선발 광주·전남 7명 합격

2008학년도 민사고 최종합격자는 154명이 확정됐다. 올해 입시에서는 지역균형선발 원칙(정원의 50% 이내 우선선발)이 엄격히 적용돼 광주·전남에서도 이례적으로 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570명이 지원한 4대1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제·국내계열로 뽑았던 이진과 달리 올해는 무계열로 신입생을 선발했고, 영어·수학 교과 등 학력 중심으로 치러지던 면접이 인성 중심으로 변화된 것이 올해 민사고 입시의 특징이었다.

지역균형선발 원칙에 따라 내선·영어공인점수·민사고 수학적시대회 등급·국어능력시험 등급·수상실적 등 객관적 성적이 비슷한 경우 서울·경기지역 출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지난해까지는 수도권 출신이 민사고 합격자의 80%를 차지했지만 올해 서울지역 합격자수는 76명에서 54명(35.1%)으로 22명 감소했고, 경기지역 역시 지난해 49명에서 올해는 42명(27.3%)으로 줄었다.(표)

서류전형에서 토플의 성적이 중요한 평가요소를 등장했다. 지난해의 경우 토플 점수가 98점이었지만 올해는 108점으로 10점이나 상승한 데서 알 수 있다. TEPS도 85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 가능했다. 합격자의 상당수가 민사고·영주 토론타대학(우 리라비 토론타대학)·영주 토론타대학·우리 역사 바로알기, 수학·물리·화학·생물·천문 올림피아드 수상자였다.

올해 입시에서는 언어·사회·수리·과학 등 4개 과목 모두 논리·철학적 사고력을 중시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단순 반복·암기식 학습 능력보다는 창의력을 본 것이다. 사회영역에서는 평이한 수준의 제시문이 나왔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얼마나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수리영역에서도 체감 난이도가 낮은 대신 수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됐고, 과학영역에서는 해박한 과학 상식으로 원리를 이해한 뒤 실생활과 연결시켜 사고하는 연습을 했던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들이었다.

Table with 2 columns: 지역 (Region) and 인원 (Number of students). Rows include 경기 (42), 경남 (5), 경북 (5), 광주 (3), 대구 (7), 대전 (3), 부산 (5), 서울 (54), 울산 (4), 인천 (5), 전남 (4), 전북 (4), 제주 (1), 충남 (3), 충북 (2).



“수학문제 풀이도 사고력이 제일 중요 학과목 편식은 위험”

면 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수학 문제도 사고력이 더 중요한 것어서 여러 방면의 책을 읽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군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영어를 공부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심슨 가족’을 즐겨 본다. 듣기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재미있기 때문이다. 학교공부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으로 끝이다. 시험을 위해서는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떠올리며 교과서 내용을 다시 훑어보는 것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워낙 느긋하고 낙천적인 성격이라 고등학교에서의 적응은 문제없다고 하지만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은 게을리 할 수 없다. 입학 전 해야할 숙제가 ‘과리대왕’ 등 문학 고전을 원서로 읽고 독후감 제출하기다. 이군은 “최근에 황금우의 ‘철학콘서트’를 읽었는데 과학 분야가 아닌 책도 재미있다는 걸 알았다”며 “생소하긴 하지만 자주 접하면 흥미가 붙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화 보며 영어 공부 문학고전 즐겨 읽어 인문학 지식 길러”

를 깊이 공부해보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다. 성양의 영어 실력은 독서에서 나온다. 요즘 청소년이면 누구나 즐겨 읽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원서로 읽는 것은 물론, 호기심에 따라 원서를 쟁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본 뒤 한국어판 소설을 읽었고, 재미를 느껴 영어본까지 구해 읽었다. 요즘은 민사고 추천도서인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원서로 읽고 있다. 듣기에 ‘프렌즈’ 등 시트콤과 외화를 보며 공부하고 있다. 하루 180개 단어 외우기는 성양의 어휘력을 높였다.

문학 고전을 즐겨 읽는 덕에 눈술에 강하다. 어휘력을 측정하는 ‘황금사전대회’에서 입상했고, 각종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탄 것도 여러 번이다. 최근 읽은 ‘철학통조림’ 시리즈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생각이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재미있게 읽은 책이다.

성양의 폭넓은 인문학적 지식은 민사고 시험에



성양의 민사고 합격 비결 중 하나는 오키나와 동아리 활동, 학생예술회에 나가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성양은 고등학교에서도 오키나와 연주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한다. 성양은 “민사고 입학 시험은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높은 수준의 학생들과 심한 경쟁이 예상돼지만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사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properties in Gwangju. Includes sections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Daedong Sangil Real Estate), '무등공인중개사' (Mudeung Public Broker), '금보부동산컨설팅' (Geombo Real Estate Consulting),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E+ Plus Public Broker), '한일지도판매(주)' (Hanil Map Sales), and '부자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Rich People Retirement Real Estate Office). Each section lists property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